

공공성 관점에서의 글로벌 교육

요시무라 코우타로
미야자키 대학

1. 국제화·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교육에서의 문제상황

글로벌 교육이란 사람이나 물건, 돈, 정보가 국경을 넘어 넓어지는 세계 및 사회(globalization)와 그것이 야기하는 지구적인 제 문제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어떤 자질이나 가치관을 키우면 좋은가라는 문제의식을 지닌 교육으로 알려져 있다1). 교통이나 통신의 급속한 기술 혁신이 초래하는 보더리스(borderless)화는 사람이나 물건, 돈이나 정보가 간단히 국경을 넘어 정치나 경제, 예술부터 생활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면적·다층적, 혹은 다중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글로벌화의 영향은 다양한 면에서 빛과 그림자를 낳고 경제격차, 민족대립, 지구 환경 등과 같이 세계 수준에서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규모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과제에 대응해 갈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 교육적 과제가 되어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화·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화·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내실은 똑같지 않다. 일본에서는 국제이해 교육이라는 명칭이 학교 교육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과나 종합적인 학습 시간 등에서 실천을 축적해 오고 있지만 이외에도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이문화 이해 교육(Education for Cross-Cultural Understanding)」, 「이문화간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등의 명칭으로 이론화, 실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화교육(peace education)」, 「환경교육(environmental education)」, 「인권교육(human-rights education)」 등도 국제화·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교육과 관련되는 분야로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2).

또, 국제화·글로벌화의 진전은 세계나 국가 수준의 정치와 경제 같은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라고 하는 신변의 생활수준에까지 큰 변화를 초래하고 언어나 종교, 생활 습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등의 차이로부터 사람들의 사이에 여러 가지 알력이나 격차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현실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외국에 장기간 체류한 후 귀국한 학생이 일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귀국학생교육(education of returnee children)」, 외국에 체류하는 일본인 학생이 장래 일본에 귀국할 것을 염두에 둔 교육인 「해외학생교육(Overseas Japanese Children Education)」,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외국인학생교육(education for foreign students)」 등이 학교교육에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3). 또, 생활상의 과제는 어린이의 연령층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단계를 마친 성인 연령에서 보다 심각하여, 현(縣)과 시정촌(市町村)의 지방행정이나 국제 교류 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일본어 학습이나 문화교류, 상담 사업 등을 통해서 생활 지원과 지역에서의 주민상호 이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공통 이해가 가능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교육은 국제화·글로벌화에 대응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확실하며, 교육이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화·글로벌화가 초래하는 영향이 시간적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수반하면서 보다 복잡해진 것이 여러 가지 교육 형태를 만들어 낸 것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국제화·글로벌화의 진전이라고 하는 시간축적인 것 및 국제화·글로벌화가 초래하는 영향의 다면화·다층화·다중화라는 문제구조의 복잡화가 국제화·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내실을 다양화시킨 이유 중 하나인 것은 틀림 없을 것이다4).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화·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넓게 파악한다면 지금까지 서술한 교육 활동 모두가 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라나 지역에 따라 국제화·글로벌화의 진전 상황에 차이가 있다 해도,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그러한 교육 활동이 요구되어 사회적 과제로 중요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화·글로벌화가 가져온 영향은 다면적·다층적·다중적이어서 대응해야 할 문제상황 그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을 생각할 때 반드시 없어서는 안되는 관점인 학생 상황도 세계에서는 실로 다양각색이기 때문에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으로부터 다양성을 빼앗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제화·글로벌화에 관한 교육은 국제화·글로벌화의 진전 상황이나 그에 따른 현지 점에서의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것에만 의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의 향후 진전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의 보다 보편성이 높은 자질육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상황 하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필요성이 높은 국제화·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다양성을 담보하면서도, 글로벌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글로벌 교육이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글로벌 교육론이 제창하는 「지구시민으로서의 자질육성」,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육성」 등은 그야말로 이러한 과제 의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회를 깊어질 인제 육성, 국가·사회의 형성자로서의 자질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과로서 사회과가 담당해야 할 국제화·글로벌화 대응 교육이란 그야말로 보다 보편성이 높은 글로벌 교육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음의 2가지 과제가 생기게 된다. 하나는 지구시민, 혹은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의 내실은 어떤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 과제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그것은 국제이해 교육이나 글로벌 교육에서 「지구시민」 「글로벌 시민」이라는 개념이 제안되었지만, 「국민형성」의 대항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역사적 문맥을 버리는 것이 되고, 교육 현상으로 내려갔을 때는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다5). 사회 문제를 국가의 틀을 넘은 지구규모라고 하는 넓은 시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구시민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나머지, 현실에 존재하고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는 국가의 틀을 무시하여 현상을 생각하게 하는 교육 실천은 과연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가지는 것일까? 국제화·글로벌화의 진전은 그 틀이 지구라고 하는 단독의 것에 일방적으로 집약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지역, 국가, 지구라고 하는 것과 같이 틀이 다중화 되어 가는 것이 본질이며, 그 다중화 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가는 자질·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한 자질·능력의 내실을 밝히지 않은 채 지구라고 하

는 틀만을 기반으로 하는 사고·판단만을 시킨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화·글로벌화 대응 교육은 되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교육의 목표로서 단지 글로벌 시민을 육성한다고 하는 추상도가 높은 것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교육 활동을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 글로벌 교육이 어떤 자질을 기르고자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명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교육론으로서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는, 육성하고자하는 자질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교육 내용을 편성하고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가라는 점이다. 글로벌 교육에 대하여 생각하기 위해서는 목표론 수준의 고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고찰도 함께 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할 것이다.

이 2가지의 과제에 답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글로벌 교육에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자질을 「공공성」 개념을 축으로 보고, 자질의 내실 및 그 육성 원리를 「공공성」 개념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교육을 구성하는 것을 시도한다6).

2. 국제화·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제 교육의 특질과 과제

국제화·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으로 대표적인 것은 유네스코에 의해 제기된 국제이해 교육이다. 국제이해 교육이 다양한 교육 영역을 지닌 종합적인 것에 대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하는 교육도 개발되고 있다. 평화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개발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교육 형태는 국제화·글로벌화에 따라 현재화·심각화해 온 다면적인 제 문제에 한 측면을 중심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형태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개관하자면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각각의 교육이 제기되어 개발과 실천을 시작할 수 있었던 초기에는 주제가 되는 문제 상황의 구조나 원인을 추구해서 파악하는 인지적 측면이 강한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제기된 제 문제의 인지적인 교육만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자질을 육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반성이 이루어져, 각각이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향에 이바지하는 것 같은 능력과 태도의 육성을 목표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각 교육의 목적이 문제의 지적 이해로부터 문제해결의 능력과 태도의 육성으로 변용해 감으로써, 서로의 영역은 보완적으로 중복하여 그 교육 목적은 문제해결 능력과 태도라고 하는 글로벌·시터즌십이라고 해야 할 자질 육성으로 변용해 가게 된다.

이러한 제 교육형태가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화·글로벌화로부터 파생하는 제 문제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끼리의 접촉이 빈번하면서 농밀하게 이루어지게 된 결과 생기는, 가치관의 차이에 기인하는 마찰이나 대립이다. 인류가 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환경에서 공존공영하기 위해서는 그 마찰이나 대립을 과제로 받아들여 어떠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제 문제에 대응 가능한 자질육성을 목표로 하는 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조건을 특질로 가지게 된다. 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 문제의 현상이나 그 원인 등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어떠한 판단 하에 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전제로서 제 문제를 스스로도 관계가 있는 과제로 인식하고 인류의 생존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참가해 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능력·태도는 그야말로 국제화·글로벌화 대응 교육이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질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자질을 이렇게 이해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글로벌한 제 문제를 고찰하고 해결 방향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할 경우, 어떤 틀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국제화·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제 교육은 이 판단 틀이나 기준으로서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진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는 지구 혹은 인류사회를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집합체라고 이해하고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 두 번째는 인류가 다양한 문화를 지닌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양성 위에 인간세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방법이다. 물론, 국제화·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제 교육이 이 두 가지 구분으로 순수하게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그 중에서 큰 갈등을 안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사고방식의 차이가 국제화·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중점을 다양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3. 국제화·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제 교육의 사고방식

(1) 정치·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사고방식

지구가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며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글로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지구규모라는 하나의 궁극의 틀까지 확대된 것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할 수 있다. 정치나 경제 등의 틀은 글로벌화의 진행에 따르는 형태로 확대하고 각각이 관련된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다해 왔다.

예를 들면, 경제 시스템은 확대가 가장 진행된 것일 것이다. 근대 이후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시장」의 확대라는 형태로 세계규모로까지 발달하여 세계를 단일 시스템으로 모두 덮여 하고 있다.

정치 시스템도 글로벌화가 지구규모로 확대함에 따라 변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시장」이라는 단일적인 요소를 강하게 지니는 장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 현재의 정치 시스템은 그러한 장치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근대 국가는 내부적으로는 국민국가로서 언어나 문화, 역사 등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통합을 도모하는 동질성을 지향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주권국가로서 서로 독립한 대등한 존재라는 형태를 지녀왔다고 할 수 있다. 국제연합 등의 국가간의 문제를 조정하는 것 같은 조직은 존재하여도, 아이덴티티와 주권을 소유하는 국가와 같은 조직은 지구규모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좋다. 여기에 글로벌한 과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큰 요인이 있다 하겠다.

사회계약론적으로 생각하면 국가는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국가내의 제 이해(利害)의 조정과 결정·실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결정에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라는 조정과 결정 방법에 대해서도 보장할 수 있는 권력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상적인 근대 국가의 역할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조정과 결정에 따른 시민사회적 공공성의 실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공공성을 형성한다고 하는 틀도 제시하는 것일 것이다. 시민사회적 공공성의 형성을 그런대로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동질성을 보장하는 틀로서 국가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었다고 하는 측면은 근대 사회에 있어서 부정할 수 없을 것이

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여러 문제가 지구 규모로 산적해 있는 현대에서 글로벌적인 수준에서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것 같은 어떠한 틀을 기대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의 하나라 여겨진다. 세계 국가론, 작금의 제국론 등은 주권국가와 같이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일원적인 조직을 상정한다는 의미에서 그 으뜸일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통치 조직을 상정하지 않고도 어떠한 가치이념을 글로벌 사회가 목표로 해야 할 가치로 설정하고, 그 가치이념을 기반으로 문제해결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도 이 사고방식에 해당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고방식의 기반에 있는 것은 「동질성」일 것이다.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행성에서 생활하는 지구시민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국가 틀을 넘어선 것이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지구라는 단일 공간에서의 아이덴티티의 재편성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가가 자칫하면 타국과의 이질성을 전제로 한 국내의 동질성이라는 논리로 아이덴티티를 확립해 왔다고 한다면, 지구라고 하는 유일한 행성에서 생활한다는 동질성에 의해 그 아이덴티티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지구시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확립했을 때 지구규모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고, 국가의 틀을 넘어선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된다.

「동질성」을 지구규모로까지 확대하고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것이 지구규모에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자질육성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 「동질성」에 의거함으로써 글로벌한 공공 공간을 형성하고, 글로벌 사회에서의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고방식에 따른 글로벌화 대응 교육론은 「동질성」의 지구적 확대를 기본적인 원리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문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사고방식

인간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으로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방법은 자칫하면 동질화의 압력을 수반하는 글로벌화의 진전에 있어서 경시할 수 없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국가로서의 근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의 동일성을 중시하고 그것을 문화적 동일성에서 추구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현실에는 어떤 국가에서도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문화적 다수파와 문화적 소수파의 마찰·대립이라는 문제가 어떠한 국가에도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화의 진전으로부터 파생하는 동질화의 압력은 문제를 점점 심각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앞 절에서 상세하게 서술한 바와 같이 세계를 하나의 글로벌 사회로 이해하고 정치나 경제 등의 여러 시스템이 상호 연관하여 기능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구미 선진국의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도 있다.

동일한 경향이 국제화·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교육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의 글로벌 교육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 쿠니프의 글로벌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키무라 카즈코(木村一子)는 「문화상대주의의 사고방식보다도 보편성이나 글로벌·시스템의 이해를 중시하는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키무라(木村)는 안도(安藤)의 민족성·문화성의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시점에서 글로벌 교육을 비판한 것으로 다음의 지적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민족성의 배려를 결여한 글로벌 교육의 이론은 자기중심주의나 자국중심주의를 극복해서 전지구적인 문제를 생각하여 해결하는 세계시민의 육성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도……와는 반대로, 구미인의 가치나 문화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세계 수준에서의 신『인종의 도가니』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⁷⁾.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문화의 다

양성을 중심개념으로 하는 교육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이문화간 교육, 민족 교육 등이다. 이들에 대해 키무라(木村)가 고바야시 데쓰야(小林哲也)·에부치 카즈히로(江淵一公)의 분류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⁸⁾.

민족교육은 국가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국가의 틀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국가가 가지는 동질성에 대한 압력에 저항하는 것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다수파 문화로부터의 통합의 압력에 저항하고, 소수민족의 문화적 특질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면서 타문화와의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자질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형태는 국가가 가지는 어떠한 아이덴티티보다도 문화·민족이 소유하는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우선하여 다양한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보유하면서 국가 범위 내에서의 공존을 지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질적인 것의 공존에 의해 글로벌화 하는 가운데 동질화의 방향성을 저지하려는 자질육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민족의 아이덴티티는 각각의 문화·민족의 내부에서는 역으로 그 동질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겉으로는 다양한 문화적가치관을 보장하도록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이질적인 가치관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문화간 교육은 국가 등 어떠한 틀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고 세계 모든 수준에서의 이문화접촉에 의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을 어떤 의미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간끼리 접촉할 때에 발생하는 마찰이나 대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공존을 도모해 가는가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질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형태는 이문화 접촉에 의한 문제해결과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 수준에서 이루어질 경우와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따라서 대립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조정 과정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문화라고 하는 관점을 주요 과제로 하는 한, 민족교육과 같이 그 내부에 동질화의 경향을 지닌 것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를 중심개념으로 하는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제 교육은 정치나 경제 등의 영역에서의 동질화에 저항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자질 육성을 지향한다고 하는 점에서 의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화도 아이덴티티 장치의 일종이며 내적으로는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고 반대로 동질화를 지향하는 활동을 지닌다. 이것을 공공성 개념으로 보자면 외적으로는 서로 대등한 제 문화에 의한 공공공간의 구축과 공공성의 형성을 추구하면서, 내적으로는 일정한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그 가치에 반하는 것 같은, 각 개인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성의 형성을 저해하는 경향을 지닌다 할 수 있다. 문화·민족이라는 시점은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사회를 짚어질 시민의 자질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에 있어서 가치관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내포하는 문화라고 하는 영역은 중심개념과는 함께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4. 글로벌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질이란

앞서 살펴본 교육론은 기존의 제 시스템의 틀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사회를 상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정치경제적 이해나 문화적 특질과 같은 다양한 가치관이 대립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어떠한 해결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제 시스템을 기저로 하는 무엇인가의 동질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확실히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세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틀이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틀이나 기준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정치·경제·문화 등의 기존의 시스템의 틀에 한정된 형태로 결정 되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은 글로벌 사회의 틀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일까? 기존의 시스템의 틀 속에서 일정한 기준을 그대로 글로벌 사회의 틀로 하는 것이라면 글로벌 사회에서의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은 어렵게 될 것이다. 글로벌 사회의 기저가 되는 틀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글로벌 사회에서 대립하는 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경제·문화 등의 제 시스템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은, 공공성을 증시한 글로벌 사회라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글로벌 사회의 제 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그 해결에 참가할 수 있는 것 같은 방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대립하는 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글로벌 사회를, 문제해결의 기반을 「민주주의원리」에 두는 것과 같은 사회를 형성하는 것일 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기조로 하여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피하는 것으로 사회 운영을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근거하는 사회 형성이 향후 글로벌 사회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인간을 다양한 사고방식을 지닌 유니크한 존재로 보고 다양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개인이 서로의 그 존재를 의식하면서 사회를 형성하고, 다양한 사상과 독자성을 가진 다양한 인간으로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중에서 글로벌 교육이 육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사회를 짊어지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글로벌 사회에서의 다양성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문제에 관한 민주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다. 글로벌 교육이 증시하는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은 글로벌 사회에서의 민주적인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자질 육성을 가질 때 비로소 실현가능한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상호 승인에 입각하는 민주적 원칙은 그 구성 멤버가 증가하면 할수록 물리적으로는 그 실시가 어려워진다. 글로벌화는 그야말로 그 범위가 확대하는 것 때문에 민주적 원칙에 의한 사회운영을 보다 어려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글로벌화 대응의 제 교육이 정치나 경제, 문화 등의 기존의 시스템을 일정한 틀로서 문제해결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들이 지금까지의 사회에서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다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 시스템이 글로벌한 제 문제의 해결에 반드시 적절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렇듯 일견 모순된 상황 속에서 글로벌 교육이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존의 시스템을 인식하면서도 그 시스템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모습, 사회의 상황을 생각하고 보다 좋은 글로벌 사회를 추구할 수 있는 자질 육성이 아닐까? 글로벌화의 진전에서는 언어가 발생하는 글로벌한 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구축하고, 그것을 표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자질이 민주적인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구체적인 제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보다 좋은 해결을 위한 방향을 구축하여 문제해결을 거듭해 가는 것이 글로벌 사회의 모습으로 가는 것에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사회에서 그 사회의 본연의 모습을 구축하는 것이란 글로벌 사회에서의 공공성을 창출하는 것이

다. 그리고, 그러한 공공성이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틀을 넘어선 보편적인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보다 민주적인 원칙에 근접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사회의 본연의 모습을 구축하는 자질을 육성하는 것은 민주적인 사회를 짊어지는 자질의 육성의 본질적인 일부분을 짊어지는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마치며

본 보고의 목적은 글로벌 사회를 짊어지는 자질의 내실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 나의 현시점에서의 결론은 그 자질은 열린 공공적 공간으로서의 글로벌 사회를 형성하는 능력이며, 그 기본원리는 개인의 존중을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국제화·글로벌화 대응 교육은 다방면에 걸쳐 그 개념 규정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 현상이다. 또, 이러한 제 교육이 대응하는 자질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화·글로벌화 그것이 여러 가지 제 조건이 다중적·다층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는 어떠한 동질적인 틀을 전제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민주주의나 공공성을 증시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는 사고방식 바로 그것이, 어떠한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글로벌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공공적 공간 바로 그것을 먼저 그 전제로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민주주의 교육 바로 그것이 보편성이 높은 글로벌 교육의 기반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번 보고에서의 주장이다.

(추가) 본 보고는 2005년에 논문으로 발표한 것에 고찰을 더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吉村功太郎「公共性を視点としたグローバル教育の構想」日本グローバル教育学会『グローバル教育』Vol. 7, 2005, pp.30-45.

【주】

- 1) 藤原孝章「グローバル教育」日本国際理解教育学会編著『現代国際理解教育事典』明石書店, 2012, p.219.
- 2) 이틀 글로벌 교육적 제 형태에 대해서는 아래의 문헌에서 각각의 특징이 설명되어 있다.
中村哲編著『グローバル教育としての社会科カリキュラム授業構成』風間書房・2004.
日本グローバル教育学会編『グローバル教育の理論と実践』教育開発研究所, 2007.
日本国際理解教育学会編著『現代国際理解教育事典』明石書店, 2012.
- 3) 예를 들면, 다음 문헌에서는 「국제이해에 관한 교육론의 변천」이라고 하는 주제로 국제화·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교육론의 시대적 변천을, 제2차 세계대전 전후를 4가지로 구분해서 개관하고 있다. 木村一子『イギリスのグローバル教育』勁草書房, 2000.
- 4) 魚住忠久『グローバル教育の新天地：「グローバル社会」から「グローバル市民社会」へ』黎明書房, 2003.
大津和子「地球市民」大津和子、溝上泰編『国際理解 重要用語300の基礎知識』明治図書, 2000年, p.34.

- 5) 佐藤郡衛「国際理解教育の現状と課題－教育実践の新たな視点を求めて－」日本教育学会『教育学研究』第74巻第2号, 2007年, p.215-225.
- 6) 「공공성」은 사회·인문과학관계의 분야에서 현재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분야이며 주목해야 할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또, 글로벌 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사회과교육의 분야에 서도 「공공성」을 테마로 한 심포지엄 등이 개최되어 그 성과가 「사회과교육과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이라는 제목으로 학회지에 정리되고 있다. (日本社会科教育学会『社会科教育研究』No.92, 2004, pp.1-106.) 이외에, 「공공성」을 둘러싼 논의에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의 관련에서 혼란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근대 이후의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성」을 관이 거의 독점적으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구미에서의 시민 사회적 시각인 『「나」에 대한 「공공」』이라고 하는 개념과 다르고, 「공공」≠「관·행정」, 「국민≠공공」인 것 같은 시각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山口定「新しい公共性を求めて－状況・理念・規準」山口定・佐藤春吉・中島茂樹・小関素明編『新しい公共性』立命館大学人文科学研究所研究叢書第16輯, 有斐閣, 2003, pp.1-28. 본 보고의 입장은 서구나 시민 사회적 시각에 기초를 두는 「공공성」이라는 입장에 있다.
- 7) 木村一子『イギリスのグローバル教育』勁草書房 `2000 `p.14.